

# 엔지니어링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호한 사실들!

*The ambiguous truth of  
people who work in the  
engineering company!*



글 | 李鍾萬  
(Lee, Jong Man)

교통·도로 및 공항 기술사  
(주) 대한콘설턴트 부사장  
공학박사

E-mail : ljm2277@naver.com

## I. 배경

일반적으로 설계 하는 회사를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으로 부르고, 일상적 통용 언어로는 「용역사」라 칭하고 있다.

「용역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토목기술이 외국에서 도입되면서 기술을 응용·활용하여 얻는 수익과 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을 특별한 의미없이 이해하기 좋은 사회적 용어로 사용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극소하고 미미한 사안일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인이나 직장인들에게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용역」의 의미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므로 어느 분야에서나 쓰여질 수 있는 용어이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함축되어 있는 통상적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발주처로부터 설계에 대한 일정한 계약방식에 따라 일감을 받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므로, 그 보람과 이익으로 생활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법(法)적, 사회통념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성 있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부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용역사」로 부르는 것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 II. 현실적인 모순점

토목 또는 건축 등 공학의 전반적인 시행을 위해서 구상 조사 설계 하는 업체를 있는 그대로 「토목설계하는 회사」 또는 「설계사」로 통념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용역사」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인, 채권 및 불법구조물 철거 등 민원 해소차원의 사안에 일정한 보상을 받고, 물리적으로 행동 또는 처신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용역회사」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용역인」으로 부르고 있다.

건설 직종에서 주로 설계, 감리업무에 임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용역으로 부르고 있는데에는, 자기를 비하할 뿐 아니라 적절한 용어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필자가 생각이 닿지 않았던 점들도 잠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사」에서 수주하는 업무는 그 자체가 반드시 「갑」과 「을」의 성립으로, 그 관계 자체의 정립에서도 용기와 긍지가 아쉬운 현실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당사자들이 부르는 호칭을 「용역사」라고까지 한다면 상당히 오도된 것이다.

예컨대 심부름꾼이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정치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심

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표현이 되고,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언어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권과 불륜관계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일감을 받아 해결해주는 소위 해결사와 같은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같은 언어이지만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건설업이 호황일 때에는 이러한 주변의 모호한 용어쯤이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 덩에 묻혀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용어 하나에도 사회여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품격 차이를 크게 구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기술인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다.

예로 든다면 원도급사에서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는 것을 협력사로 부를 때 어감이 좋은 것과 같이 용역사라는 사회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호칭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인식으로 불러주는 언어가 또 하나의 기술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 III.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건설 분야에 있어서 주로 토목을 위주로 건축·교통·조경·전기 부대시설 등을 다 포함하여 갑과 을의 성립에서 설계하는 회사에는 「용역사」가 아닌 「설계사」로 바꾸어야 불러야 한다고 생각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면 「토목설계사」, 「조경설계사」, 「구조설계사」, 「건설감리원」 등으로 어원을 바꾸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이에 따른 모든 사회 환경이 바뀌어 가는데, 옛 것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는 「용역사」라는 호칭이 될 수가 없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부업을 하는 「용역인」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인 자신들의 소중함이 있을 때 타인의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사회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의 품격을 상승시키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위적 입지 개념으로 발상을 달리하므로, 새로운 희망과 청운의 뜻을 품고 설계, 감리업무를 전문업으로 선택하여 뛰어드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자부심과 용기를 불러 넣을 수 있는 일상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쁘고 한창 시절에야 무슨 소리를 한들 무엇으로 호칭을 한들, 크게 상관이 되었겠느냐는, 시대와 삶의 패턴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호도될 우려가 많은 호칭에서, 가급적 품격이 살아있고, 좋은 어감이 함축되어 있는 용어가 훗날을 바라보는 젊은 후배나 기성 기술인들에게도 위상을 제고해 줄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도 「설계사」라는 호칭으로, 먼저 사회를 선점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는 정성적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기술인들은 공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설계 업무는 정량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사실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무를 하는 회사는 「용역사」가 아니고, 「설계사」가 되어야하고, 종사자는 용역인이 아니고 설계사 내지는 기술인으로 표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이 그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인간의 격상을 형성한다는 데에 동감 한다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의 자존심과 용기 그리고 명예를 찾아가 일층 분발할 수 있는 「설계사」라는 호칭 사용이 일반 국민에 까지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23일)